

# 좁은 가로에 유연한 곡선이 만들어준 여유

## 소래너나들이

송주원  
지엔엠건축사사무소 공동대표

### 개요

|         |                                                          |
|---------|----------------------------------------------------------|
| 위치      |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704-2(소래초등학교 내)                              |
| 용도      | 교육연구시설(학교복합시설), 주차장                                      |
| 대지면적    | 21,579.20m <sup>2</sup> (공사 부분 면적: 7,674m <sup>2</sup> ) |
| 건축면적    | 증축면적: 96.64m <sup>2</sup>                                |
| 연면적     | 증축면적: 5,899.17m <sup>2</sup>                             |
| 규모      | 지하 1층, 지상 1층                                             |
| 높이      | 3.45m                                                    |
| 건폐율     | 16.26%(0.49% 증가)                                         |
| 용적률     | 42.75%(0.45% 증가)                                         |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 구조설계    | 미래에스이 이나영                                                |
| 설계      | 송주원                                                      |
| 설계담당    | 이중현, 이상준, 김가람, 김수빈, 김장유                                  |
| 시공      | (주)와이제이건설                                                |
| 기계·전기설계 | (주)건일이엔지                                                 |
| 설계기간    | 2021.4.~2021.12.                                         |
| 시공기간    | 2022.2.~2023.8.                                          |
| 공사비     | 약 131억 원                                                 |
| 건축주     | 시흥시                                                      |



커뮤니티 시설 상부에 조성된 운동장



건물을 가로에서 후퇴하고 처마 밑 공간을 만들어  
운동장 면적은 최소로 줄이면서도 보행로를 넓혔다.  
도로와 평행하게 건물을 배치하는 대신 건물을 분절해  
그 사이사이 커뮤니티 마당을 넣고, 가로에 '주름'을  
만들어서 가로에 대응한 학교와 마을의 점점공간을  
만들고자 하였다. 이렇게 넓힌 보행로는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가 되고, 군데군데 만들어진  
작은 포켓공간은 가로형 커뮤니티 공간이 되었다.





©이리선

폴딩도어로 외부로 향해 열리는 주민카페



©이리선



©이리선

상 학교복합시설 입구진입마당  
하 지하주차장 입구와 운동장으로 이어진 등교계단





학교 연결통로



상 다목적실  
하 입구부터 경계가 없는 작은도서관



아이들이, 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홀형의 공용공간을 만들어 커뮤니티 확장공간, 복도갤러리와 교류의 공간이 되게 하였다. 최대한 칸막이를 없애고, 폴딩형 칸막이와 투명한 유리를 활용해 경계 없는 열린 실, 빛을 들이는 내부 동선을 만들었다. 경계가 사라지고 모서리는 굴러져 시야가 넓어졌다.



©이러나

홀형의 공용공간 복도갤러리

### 좁은 가로에 유연한 곡선이 만들어 준 여유

곧게 뻗은 일자로 상자 같은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시흥 구도심 대야동의 주택가 좁은 골목길 사이에 유연한, 그래서 낮은 콘크리트의 곡선을 넣어 위에는 학교 운동장을, 그 아래에는 ‘주름’이 잡힌 생활SOC시설을 만들었다. 이렇게 옹벽과 건축선에 맞닿은 건물로 막힌 가로 대신 한쪽 시야가 열리고 여유가 자리 잡은 보행로로 인해 새로운 가로풍경을 마주할 수 있게 되었다.

### 오랜 시간을 간직한 학교와 마을

낮익은 동네 모습에 기억을 한참 더듬었다. 30년도 더 지난 시절, 새로운 시청사 설계에 당선되어 협의를 다니던 구 시청이 있었던 동네임을 알게 되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고, 오래된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골목들의 모습은 그리 변함없는 모습이었다. 주변에 새로운 택지 지구가 들어서고 시청이 옮겨 가서 예전의 활기가 없어진 듯한 인상을 가진 시흥의 원도심. 소래초등학교는 그 안에 자리 잡은, 이제 곧 개교 100년을 맞는 학교였다.

처음 접한 이후 수없이 다시 찾았던 대지는 거칠고 위태로워 보였다. 아이들이 학교로 가기 위해 걷는 좁은 길 옆으로 높은 옹벽이 절리듯 솟아 있었다. 옹벽 위 운동장은 놀고 싶은 아이들과 야구부 연습 공간을 다 담기에 부족해 보였고, 그 안의 아이들 모습은 안타까웠고 보기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오랜 시간을 견뎌 낸 학교와 겹겹이 그 세월을 간직한 동네의 모습은 누가 봐도 쇠락한 구도심의 모습이었다.

### 시흥시 학교복합시설 2호, 소래너나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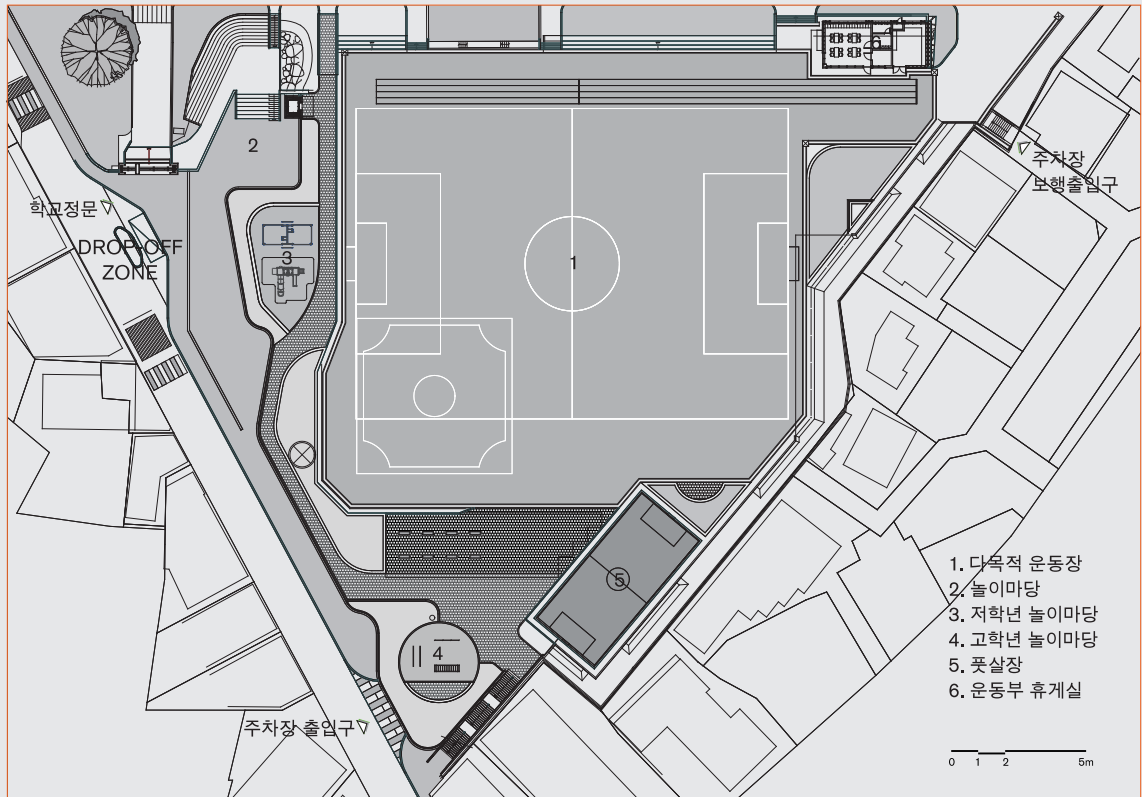
시흥시는 구도심, 신천·대야동 지역 ‘소래산 첫마을’ 재생 프로젝트의 가장 큰 사업인 소래초 학교복합시설을 통해 구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를 이미 몇 년 전부터 기획하고, 예산을 만들고, 소래초와 지역 주민들과도 협의를 이어가고 있었다. 시작과 함께 학부모와 졸업생 그리고 학교와 시 관계자들이 설계자 및 자문위원과 머리를 맞대고 모여 앉아 어떤 공간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야기를 나누고 토론하였다. 그렇게 만든 공간이 시흥시 학교복합시설 2호 ‘소래너나들이’이다.

©이러나



상 커뮤니티 시설 상부에 조성된 운동장  
하 도로에 면한 정문 진입공간과 통학로





지상 1층 평면도

### 학교와 마을의 접점에 '주름'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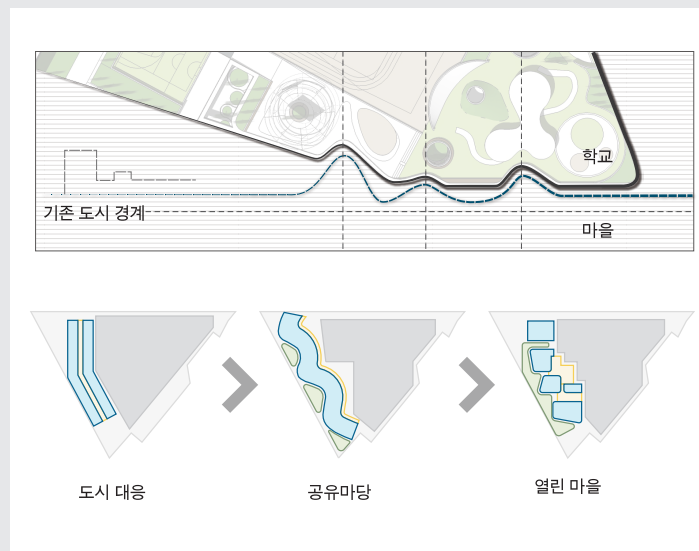
좁은 골목길의 대부분을 차에 내 주고 남은 통학로는 1m 남짓. 안전 난간이 설치된 그 좁은 통학로를 넓혀 주고 싶었고, 그 높은 담장을 빨리 없애 주고 싶었다. 먼저 건물을 가로에서 후퇴하고 처마 밑 공간을 만들어 운동장 면적은 최소로 줄이면서도 보행로를 넓혔다. 도로와 평행하게 건물을 배치하는 대신 건물을 분절해 그 사이사이 커뮤니티 마당을 넣고, 가로에 '주름'을 만듦으로써 가로에 대응한 학교와 마을의 점점공간을 만들고자 하였다. 이렇게 넓힌 보행로는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가 되고, 군데군데 만들어진 작은 포켓공간은 가로형 커뮤니티 공간이 되었다.

### 지하공간에 빛을 들이기

운동장 지하를 활용해 들어서는 건물의 특성상 자연채광 문제를 가장 염두에 두었다. 경사를 활용하고, 건물의 요철과 주름으로 외벽의 길이를 늘려 대부분의 실들이 1층인 것처럼 외기에 면하도록 해 자연채광을 최대한 받아들이고, 빛이 들지 않아도 되는 강당과 주차장은 안쪽으로 배치하였다. 지하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밝고 환한 실내가 만들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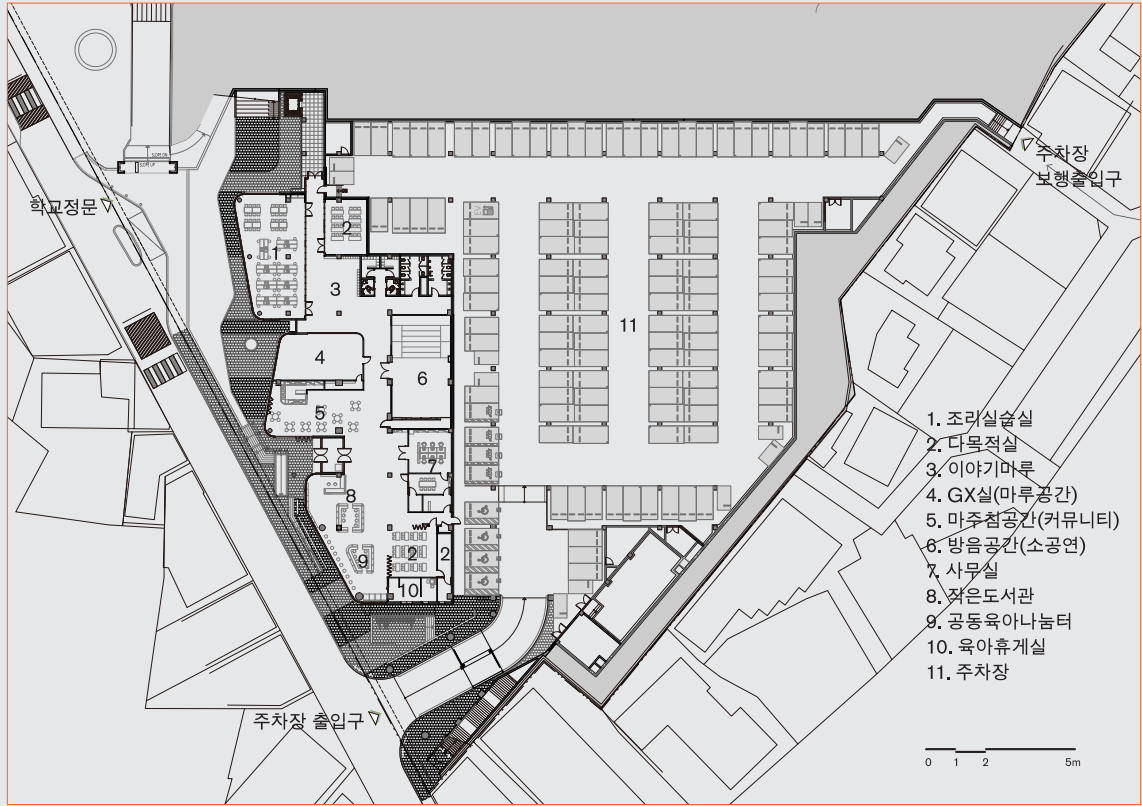


상 학교복합시설 입구진입마당  
하 지하주차장 입구와 운동장으로 이어진 등교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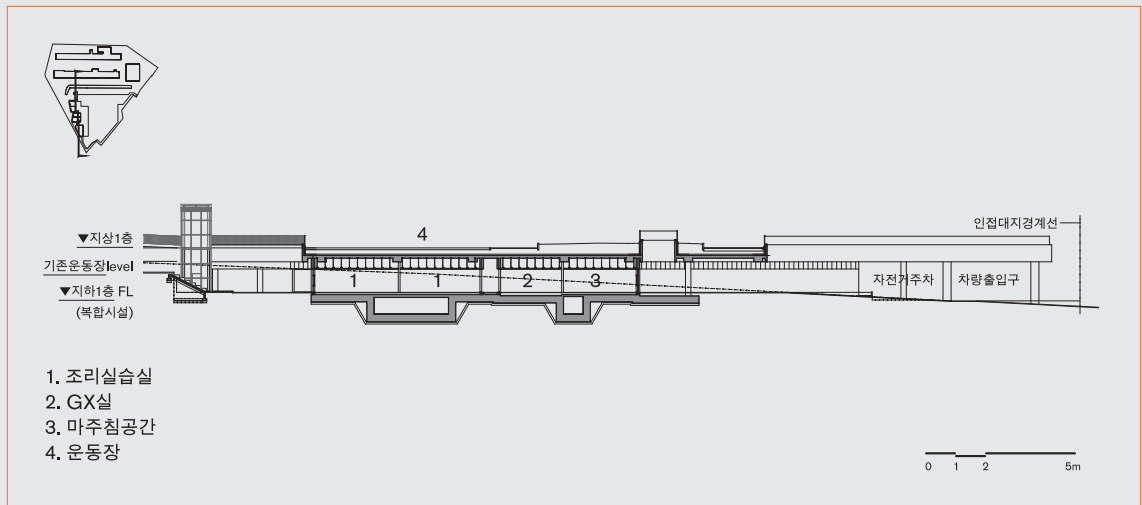


점점 공간 다이어그램





지하 1층 평면도



종단면도

### 복도가 아닌 커뮤니티 공간으로

단순히 긴 복도로 이어진 공간이 아니라 이 복도 또한 하나의 공간으로 아이들이, 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홀형의 공용공간을 만들어 커뮤니티 확장공간, 복도갤러리와 교류의 공간이 되게 하였다. 최대한 칸막이를 없애고, 폴딩형 칸막이와 투명한 유리를 활용해 경계 없는 열린 실, 빛을 들이는 내부 동선을 만들었다. 경계가 사라지고 모서리는 굴러져 시야가 넓어졌다.

### 아이들에게 돌려준 운동장

운동장은 야구부 사용으로 안전하지 않았던 놀이공간, 놀이공간이 부족해 이용률이 떨어지던 문제 등을 개선해 고학년·저학년·운동부 공간을 구분하여 만들었다. 또 높은 단차와 열악한 시설, 축 처진 안전그물 등의 문제를 보완하고, 태양광 패널 그늘 아래 쉼터를 만들어 야외 수업에도 활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활용도 높은 운동장이 되도록 하였다.

### 사용자 참여 디자인

이 프로젝트는 공모 단계에서부터 '사용자 참여 디자인'을 제안하였다. 설계 준비단계부터 완성단계까지 학교, 학부모, 지역 주민, 동창회, 관계 전문가와 유관기관(시흥시 교육자치과, 도시재생과, 시흥도시공사, 시흥교육지원청 등)이 4개 분과(소래초내부·소래초외부·지역주민·관계기관, 총 77명으로 구성)의 '주민참여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서로 머리를 맞대 설계를 진행하였다. 분과별로 계획안을 설명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협의·취합한 후 다시 의견을 재조정하고, 설계안을 제시하는 긴 과정이 이어졌다. 4번의 전체 설명회를 비롯해 셀 수 없는 분과별 모임과 토의가 진행되는 동안 때로는 갈등과 의견충돌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다시 설계대안을 만들어 설명하고 설득하고 통합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과정이 이어져 도입시설 구성뿐 아니라 시설 운영까지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건축가로, 중재자로, 때로는 협상가로 힘들고 길고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그만큼 소중한 건물이 되었고 값진 경험이었다.



상 입구에서부터 경계가 없는 작은도서관  
중 폴딩도어로 외부를 향해 열리는 주민카페  
하 다목적실





상 학교 연결통로  
하 홀형의 공용공간 복도갤러리

## 구도심 활성화의 출발점

아이들은 요리교실에서 반죽을 만들고, 전체 벽면에 유리가 붙은 마루공간에서 춤을 추고, 소공연장에 한데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주민들은 넓은 주차장에 마음껏 주차를 하고, 마을카페에서 정담을 나누고, 도서관에 앉아 책을 본다. 때때로 마을축제 등 다양한 이벤트를 열어 주민들이 서로 어울리고 함께 만들어 가는, 구도심의 작은 커뮤니티 공간이 되어 간다.

등교 시간에 넓어진 통학로와 정문 앞은 여유로운 웃음으로 채워지고, 야구부는 넓어진 운동장의 높은 펜스 안에서 마음껏 공을 친다. 운동장 한편에서는 조잘대는 아이들의 소리가 정겹다. 이 작은 변화들이 오랫동안 설계해 온 나를 감동시킨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되었다.